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격 | 월 | 간

2021년 7월 제 **117** 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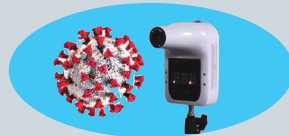
발행인 조해봉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코로나 기승 속 철저한 방역 아래 진료 계속’ 본원, 9월 초 전 직원 백신접종 완료 예정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그동안 제한됐던 사회경제적 기능들이 제 자리를 찾아갈까 싶더니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방역과 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7월 초 이곳 쪽방촌 지역의 한 교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시설을 잠시 폐쇄했고, 인근의 무료 급식소도 문을 닫았다. 그러나 본원은 휴진이나 진료시간 단축이 환자들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강화됨에 따라 본원도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 ①②는 직원 대상 코로나 검체 채취 모습, 사진 ③은 치과 진료 장면.

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정부 지침 안에서 가능한 한 정규 진료를 계속할 계획이다.

신완식 본원 의무원장은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는 한 병원 문을 닫거나 하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병원 자체적으로 방역을 위해 2주일에 한 번씩 직원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내원 환자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쪽방촌 향기



병원 소식



환자스토리



본원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하면서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춰 기본 검진과 약 처방을 위한 내과 중심의 부분 진료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의료진과의 대면 진료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6월부터 낮 진료와 더불어 밤 진료까지 진료를 정상화했다.

진료는 정상화했으나 음악치로나 영화포럼 등과 같이 다중이 모이는 재할 및 자할 프로그램은 아직 보류 중이다. 본원 사회사업실 민광한 재활지원팀장은 “재개발에 따라 본원이 입주하거나 새로 지을 건물 상황을 감안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관련 프로그램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보류된 음악치로나 영화 포럼 같은 재할 지원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 새로운 시각으로 점검 중이다.

본원 직원 대상 12차례 자체 선별검사

본원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 이미 지난해 말부터 본원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실시해 왔다. 처음 두 번은 각 직원들의 주소지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고, 올 1월부터는 한 달에 두 차례씩 본원 임상검사실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검체를 채취한 뒤 외부에 분석을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현관 밖에서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바꿔 쓴 뒤 실내로 들어와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현관 담당자가 현관 밖에서 체온 측정을 준비하는 모습.

의뢰하고 있다.

임상병리검사를 맡고 있는 김재근 본원 의료사업실장은 “지난 1월 20~21일부터 7월 14~15일까지 직원과 현장 체험 나온 신학생 및 목동의 집 입소자 등 40명 내외 대상자에게 모두 12차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코로나19 검사는 입과 코에서 채취한 검체를 전문 분석기관인 (재)서울의과학연구소로 보내 이튿날 온라인으로 감염 여부를 통보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선제적으로 본원 직원과 관련 인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본원의 코로나 안전도를 점검하고, 본원을 찾는 환자나 의료봉사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관 바깥에서 체온 측정하고 마스크 교체

본원의 코로나 방역 조치는 이같은 코로나 진단검사 외에 출입자들의 체온 확인을 통한 증상 체크와 환자들에 대한 새 마스크 지급, 환자와 의료진 및 상담자 간 칸막이 설치, 소독 실시, 백신 접종 등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환자와 상담자 간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본원에서는 지난 1월 진료실에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한 데 이어 3월까지 상담실과 식당에도 설치를 모두 마쳤다. 또 올 초부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한편, 출근 시 직원들의 체온을 기록한 일일 증상일지를 작성토록 해 감염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환자 등 내원자가 많은 본원에서는 특히 현관 출입자들에 대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및 마스크 교환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쓴다. 올 2월부터는 기존의 수동식 체온계를 비접

2021.05~06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장경근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100여 가구 선정해 매달 식료품 지원 시작

지난 6월 가톨릭경제인회 소속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을 '바보의 나눔' 재단을 통해 이곳 필리핀 요셉의원에 전달했다. 이 고마운 후원에 힘입어 의료, 급식, 장학금 자원과 더불어 네 번째 공식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식료품 지원 사업인데, 기존에 불규칙하게 나눠주던 것을 총 100여

가구를 선정해 매달 2만

5천원 상당의 식료품을 1



사진 왼쪽은 가톨릭경제인회가 후원금을 전달하는 장면, 사진 오른쪽은 가난한 가정에 나눠줄 각종 식료품들.

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별것 아닌 듯하지만 한 달 열심히 일해 야 8000페소(1페소는 약 23원) 정도를 받는 이들에게 1000페소어치의 식료품 지원은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까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됐다. 먼저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을 돌며 각 가정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선정기준은 부모 없이



부모가 없거나 편부모 가정, 부모가 직업 없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사진은 방문한 빈민촌 모습.



생활 묵상

‘오그라든 손, 오그라든 마음’

스포츠에는 홈 애드밴티지라는 것이 있다. 내가 즐겨 보는 잉글랜드 축구 프리미어리그에는 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으로 몇 년 동안 홈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팀들도 있다. 사람은 늘 지지와 응원, 인정을 받길 원하고, 그것이 충족 되었을 때에 큰 에너지를 얻으며,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변 환경이 홈이 아닌 어웨이인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어웨이에서 경기에 임하는 경우도 있다. 칭찬이나 인정, 지지보다는 꾸중과 뒤통 때로는 무관심과 야유가 집안이나 학교 직장등 소속된 곳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요즘 인기 강사인 김창욱 교수님이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결핍이 삶의 원동력이 될 때 그 파급은 매우 클 수 있다. 그것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더 절박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한 동기가 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없듯이,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직업에 있어 성취를 이끌 순 있어도 삶에서의 지속적인 기쁨을 이룰 수는 없다'고 말한다.

즉 삶의 최종 목표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런 결핍을 동력으로 사는 삶에는 항상 불안이라는 '메탄가스'가 나온다고 한다. 잘 났을 때의 칭찬이 아닌, 잘 안 났을 때의 꾸지람이나 혹은 일이 잘못돼 내가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불안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 실수에 위로나 격려가 아닌 야유나 비난받았던 경험이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면 현재도 행복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감정은 좀 내버려두고, 내가 속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가 어웨이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탓이 아님을 바라보고, 스스로와 화해를 할 필요가 있다.

중년이 넘어서 사사로운 것에 연연하지 않고 타인을 잘 배려하며 멋지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정, 편모나 편부에 아이 2명 이상인 가정, 부모가 아무 직업 없이 아이들이 3명 이상인 가정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다 비슷해 보이는 판자촌이나 이 와중에도 쓰러질 듯한 가난한 집들은 더 깊숙이 숨어 있다. 모두 다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굶는 이'들을 찾는 것이 과제다.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지, 판자 집인지 아니면 벽돌집인지, 남편이 직업이 있는지, 아이가 몇 명인지를 묻고 살펴본다.

모든 가정에 다 지원을 해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지만, 그만큼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몰차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따질 만도 한데 하나같이 이해해 주며 고맙다고 한다.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다.

“제발 일찍 좀 찾아오세요”

매주 금요일은 성인 일반 진료가 있는 날이다. 오늘 심각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찾아왔다. 작년 6월 다른 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통해 질병 진단을 받은 뒤, 치료비도 없는데다 팬데믹 상황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서야 바짝 마른 몸에 앉아 있기도 힘든 상태로 다시 내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이다. 참다 참다 거의 다 죽어서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는 여러 검사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한다.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다.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한 성숙의 여정이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찾아온다(마르코 3,1-6).

손이 오그라든 것은 그 자신 탓이 아니었을 것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새 일하다가 다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마침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는 일을 할지 주시하고 있었다.

부끄러워 싸매고 다녔던 손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꺼내 놓는다. 주님은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신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하신다.

내 마음 안에 오그라든 곳이 어디인가 살펴본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패이고 상처가 나서 남들이 알까봐 두렵고, 알려지면 수치스런 내면 깊숙한 그곳. 그곳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환자들 중에는 병이 심해진 다음에야 찾아와 도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필리핀요셉의원에서의 진료 모습.

이곳 의사선생님도 환자의 상황을 대충 알텐데 결정을 나에게 미룬다. 안타깝지만 검사 후에도 달라질 건 별로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검사 비용을 물으니 60만원이 넘는 큰 액수였다. 그러나 검사를 받는 게 환자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래도 '케어'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런 환자들을 보면 딱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제발 일찍 좀 찾아오세요"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된다.

+ 2021년 5~6월 신규 후원회원 및 단체

- 김권숙 ● 김금수 ● 손보람 ● 요 한 ● 이경화
- 이우현 ● 정순옥 ● 정 승 ● (주)케이알피아(후원단체)

+ 2021년 5~6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667명 ● 약 처방 281명 ● 급식 10,061명

+ 개원 후 진료 및 급식통계(2021년 6월 현재)

- 진료 82,563명 ● 급식 368,706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3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쪽방촌 향기

딸과 함께 나눴던 '봉사의 기쁨'

“봉사자로서 느꼈던 안타까웠던 점 하나는, 요셉의원의 훌륭한 인적·물적 자원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조문상

본원 치과봉사의

요셉의원은 제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선배님인 조현기 선생님께서 요셉의원 봉사의를 모집한다고 하실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 것을 알고는 다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도 봉사를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진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봉사라 낯설었지만 요셉의원 식구들이 가족 같이 반겨주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봉사 일에 적응할 즈음에는 월 1회 봉사를 2회로 늘렸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무언가 미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침 요셉의원에서 요일을 바꿔서 매주 봉사해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 있어서 매주 수요일 저녁진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셋이라, 일과 후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아내도 봉사를 지지하며 응원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불러주신 분이나 응원해준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을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봉사한다는 것을 주변에 알립니다. 그 결과, 지인들 중에 1회성이 되었던 정기 후원이 되었던 후원자도 생겨났습니다. 외람되지만 아마 제가 받을 상은 바로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과 봉사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마음을 제 큰 딸도 함께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요셉의원의 배려로 같은 날 봉사를 하는 행운을 누리게 된 큰 딸은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온 탓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이 바로 근처에 있다는 것

을 처음으로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딸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생각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접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큰 딸은 가끔 이야기 중에 ‘아빠랑 함께 봉사할 때가 참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도 꼭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요

셉의원 봉사를 통해 학교나 학원에서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것을 제 딸이 배웠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치과에서는 치아가 없거나 부족해 밥을 먹기 힘든 환자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요셉의원에서는 제가 일주일에 하루만 진료를 해서 치료의 진행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 주라도 빨리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두 달 여의 시간이 걸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 치료 기간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많이 불편하고 힘들 텐데 다들 잘 견디시고 불평조차 없는 것을 보면 참 착하고 순한 환자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고 더 빨리 치료를 끝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게다가 감사의 뜻을 글로 남겨주시는 분도 있어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일화는, 제가 요셉의원에서 치료를 맡고 있던 환자 한 분이 요셉의원에서 운영하는 ‘목동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운영하는 치과(목동의 집과 가까움)에 내원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 분은 ‘아니,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라며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마치 요셉의원 상근(full-time) 치과의사처럼

보였나 봅니다. 봉사의라는 사실을 알고 난 그 환자와 저는 서로 신기해 하며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셉의원 봉사자로서 느꼈던 안타까웠던 점 하나는, 요셉의원의 훌륭한 인적·물적 자원이 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초보 봉사자의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원의 이념-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가운데 '자립'이란 단어가 눈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봉사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분들이 사랑과 치료의 도움으로 자립하여 사회구성원의 한 명

으로 바로 서는 그 점까지 보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좀 더 많은 사람이 사랑과 치료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작은 바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요셉의원에는 소리 없이 빛도 내지 않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봉사 초보인 제가 글을 쓴다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봉사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겠다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이 글이, 오랜 세월 봉사를 해오셨던 분들에게는 예전의 초보 시절을 기억하며 행복감을 떠올리고, 봉사 여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작은 용기를 전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셉의원 소식

본원 봉사의 고영초 교수, LG 의인상 수상 48년 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진료 봉사



본원 개원 초부터 신경외과 봉사로로 헌신해 온 고영초(68) 건국대 의대 교수가 지난 5월 27일 LG복지재단으로부터 'LG의인상'을 수상했다. LG복지재단은 고영초 교수가 의대 본과에 재학 중이던 1973년부터 가톨릭학생회 의료봉사팀의 일원으로 매주 의료 취약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진료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48년 간

무료 진료 봉사를 이어왔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고 교수는 지난 1977년부터는 시간을 쪼개 무료진료소인 '전진상의원'을 비롯해 본원과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을 매주 번갈아가며 찾아가 의료봉사를 해 왔다. 지난 48년 간 고 교수에게 무료진료를 받은 환자만 해도 1만 5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뇌수술 전문가인 고 교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도의 정밀 진료가 필요한 가난한 환자를 직접 대학병원으로 데려가 무료 진료를 해주기도 했다. 고 교수는 특히 본원 설립자인 선우 경식 원장이 선종하기 2년 전인 2006년 5월 뇌경색이 왔

을 때 치료를 맡아 운명하기 직전까지 주치의 역할을 하며 돌본 인연이 있다. 두 사람 모두 '한 때 사제의 길을 걷고 싶었지만 하느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 의사가 된' 사연을 지녔다.

고 교수는 본원 소식지 2008년 6월호에 선우 원장을 회고하며 "선우 원장님은 한마디로 내가 가보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한 길을 걸으셨던, 마치 한국의 슈바이처와 같은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다"고 술회했다.

고 교수는 수상 소감 인터뷰에서 "몇 시간 힘들게 병원에서 수술하고 한 시간 넘게 운전해서 의료봉사 현장에 가면 파김치가 되기도 하지만, 환자들과 만나 진료하다 보면 피곤함이 씻은 듯 사라진다"며, "이런 보람과 기쁨이 40년 넘게 자발적으로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미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최복희 약사)

최복희 약사 정년 퇴임

본원에서 17년 동안 약국 업무를 담당했던 최복희 약사가 6월 30일 정년 퇴임했다. 약대 졸업 후 서울 고려병원(강북삼성병원 전신) 등에서 약사로 근무하다 본원 설립 초기에 약국 봉사자로 일했던 그는 한 때 수도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본원을 떠났다가 다시 합류해 2009년부터 12년 동안 헌신해 왔다.

조해봉 원장신부는 이날 미사 강론에서 “최 약사님이 오랜 세월 요셉의원에서 수고하셨다”고 치하하고,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의 고리를 통해 또 다른 곳에서도 최 약사님의 달란트를 유용하게 쓰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약사는 퇴임 인사말에서 “정년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다”며, “앞으로 하느님의 손을 잡고 남은 여정을 용감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 위해 마스크 전달

지난 7월 3일 (주)배관랜드 송용오·허윤희 공동대표와 안양 벌말성당 송근배 빈첸시오회 회장이 함께 방문해 마스크 2500장을 기증했다. 벌말성당에서 빈첸시오회 회장을 역임한 허윤희 대표는 “일찍부터 요셉의원이 어렵고 가난한 이

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가 이번에 청소소에서부터 음악치료, 시설보수 등까지 도울 일이 없는지 확인할 겸해서 마스크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특히 건물을 보수하거나 새로 지을 때 자재에서부터 시공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방문 환자 모두에게 새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 본원에서는 이번 기증품을 환자용으로 요긴하게 쓸 예정이다.



선우 경식 기념사업회 준비위원 위촉

선우 경식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위원장 황돈)는 7월 26일 저녁미사 뒤 양현우 신부(의정부교구)와 변수만 전 요셉의원 원로봉사자를 원외 준비위원으로 위촉했다. 양 신부는 신학생 시절인 1997년 본원이 영등포로 이전한 뒤 1년 여 동안 현장 체험 겸 노력봉사를 하며 선우 경식 원장과 두터운 교감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진

다. 지난 2017년 12월 본원에서 퇴임한 변 위원은 16년 여 동안 본원 소식지 제작 담당을 하며 30년사 발간 작업을 비롯해 본원과 선우 원장 관련 자료 정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두 달 전 선우 원장 유품을 1차 정리한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외부 준비위원 영입을 계기로 기념사업회 발족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층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사진 왼쪽은 양현우 신부, 오른쪽은 변수만 위원

카자흐스탄 의료봉사 수녀 선물 전달

카자흐스탄에서 의료 선교 활동 중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소속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가 피정 차 귀국하며, 카자흐스탄 우스토베에 고려 이주민 2세로 정착해 살고 있는 교민이 보내준 초콜릿을 본원에 전달했다. 본원에서는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난한 환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으며, 2019년 7월에는 본원 실사팀이 카자흐스탄 현지를 방문해 의약품을 지원해 준 바 있다.





환자 스토리

‘조건부 수급’ 받아 새 삶 찾는 최수명 씨

“도박에 몰두하면 정신까지 파폐해집니다”



석재 기술자로 일하다 한 동안 도박에 빠졌던 최수명 씨(가명·56)는 50대 중반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조현병 증상이 도진 불운한 환자다. 다행히 최근 증상이 안정돼 영등포 복지시설을 통해 자활 근무

를 하는 그는, “7월 중에 조건부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돼 딱 막힌 삶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화병이랄까 답답증이 생겨 수시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청와대와 인권위에 두 번씩이나 탄원서도 냈습니다.”

8개월 옥살이를 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그는 자살을 결심했다. 목을 맬까, 농약을 마실까 생각하다 한강에 투신하기로 마음 먹고 영등포로 왔다. 그동안 이곳 저곳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그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숙식 제공 보호시설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한다.

“배는 고프고 죽을 생각만 하다 노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불을 건어치는 거예요. 영등포 웅달샘드롭인센터(단기 쉼터) 여성 직원이라며 쉼터를 알려주고 자활 일에 대해 얘기를 해주더군요.”

이후 웅달샘에서 잠시 머물던 그는 가까운 보현종합지원센터로 옮겨 한 달에 보름 정도 오후 1시~5시까지 지역의 노숙인들을 살펴보고 마스크나 간식도 전해주는 순찰 일을 하게 됐다. 여기서 받는 급여는 한 달에 75만원 정도로, 굶주렸던 때를 생각해 아껴 쓰고 있다.

최 씨는 20여년 전 경륜 등 도박에 몰들어 그때부터 삶이 어긋나게 됐다고 고백했다. 시골에서 고교 중퇴 후 성남의 과자공장에서 일했던 그는 군에서 제대한 뒤 형님 밑에서 석재 가공기술을 익혔다. 기술이 좋았던 그는 30대 중반 무렵 호주로 건너가 1년 정도 석재 일을 하기도 했다.

“그 뒤 안양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며 별도로 석재 일을 했었지요. 그러다 6년 전 태양열 설치 작업을 하다

다리를 크게 다쳐 일을 못 하면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도박과 이혼, 자책감, 부상 등 그를 둘러싼 상황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고, 이로 인해 정신병원에 세 차례나 입원하기도 했다. 본원에 처음 내원한 때는 지난해 11월, 조현병이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요셉의원 담당 선생님이 제 상태를 살펴보고 약을 잘 처방해 주신데다 특히 진단서를 정확히 발행해 주셔서 지난해 12월에 조건부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마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는 “도박은 길게 하면 잃게 돼 있고, 무엇보다 도박 이외의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해 사람이 파폐해진다”고 강조했다.

후원의 손길

뇌병변 딛고 취업해 모은 후원금 기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만도 은총이지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는 김수진 씨(가명, 여·27)가 직장에 취업한 뒤 첫 월급을 포함해 1년 동안 모은 350만 원을 본원에 기부했다.

지난 6월 29일 기부자인 수진 씨를 대신해 본원을 찾은 김 씨의 어머니는 “딸이 어릴 때부터 돈 벌면 불쌍하고 가난한 이를 돕겠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지난해 처음 취직해 알뜰하게 모은 돈을 이번에 기부하게 돼 무척 기뻐했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때 뇌병변으로 수술도 받고 거동을 제대로 못하게 된 수진 씨는 신체 여러 장기에 문제가 있어 항상 아프고, 병원에도 자주 다닌다고 한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이번 기부는 개인적으로 큰 결단이 아닐 수 없다.

“남달리 의지가 강하고 총명한데다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느님에 관해서 얘기도 자주 하고, 신앙심이 깊었어요.”

지병 때문에 제대로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그는 주로 인터넷 강의로 공부해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와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어 온라인 강좌를 통해 그래픽 프로그램 배워 지난해 이 분야 업체에 취업했다. 업무 성격상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출퇴근에 따른 번거로움이 없다.

“가족들의 짐을 덜어주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지요. 쉬엄쉬엄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머니 이 씨는 “수진이가 육체적인 역경을 이기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게 된 것이 모두 하느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 모두가 항상 감사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기후원 외에 500만원 쾌척한 정인형 후원자

“하느님의 축복 속에 평생 십일조를 바칩니다”

2015년부터 매월 적지 않은 돈을 정기 후원하고 있는 정인형 후원자(가명·74)가 지난 6월 중순 별도로 500만 원을 보내오면서 “아파트와 땅을 팔며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계산해 요셉의원에 십일조를 했다”고 밝혔다.

“원래 미얀마 현지에서 건물을 지어 아이 돌봄 등 봉사 와 선교사업을 하는 선교단체에 기부할 생각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의원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정 후원자는 개신교 단체 몇 군데와 미얀마 및 필리핀, 태국 선교단체 그리고 천주교 계열로 본원과 마리아수녀회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 평범한 은퇴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꾸준히 국내 외의 여러 기관에 기부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제가 40대 초반에 제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식으로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면

서 죽는 날까지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후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인 정 후원자는 1965년 미국으로 건너가 증권회사와 회계법인에서 일했다. 열정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은행을 설립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자신을 보았고 결국 하느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다”고 술회했다. 1994년 귀국한 그는 은행 연구소와 증권회사에서 일하며 주말에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부산 모대학 교수로 임용돼 18년 동안 재직했었다.

“굴곡 있는 삶을 살아오면서 나 자신은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하느님은 항상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기적을 보여주시지요. 해마다 몇 곳에 기부를 하는데도 순자산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돈독한 신앙인이면서도 그는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람 모임이 되기 쉬운 교회 생활에 한계를 느꼈고, 특정 교회에 대한 현금은 사용처가 단순한 데 비해 봉사기관을 통해 전달하는 기부는 다양한 형태로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천주교에 대해서는 ‘좌파 성향이 강하다고 느껴’ 한 때 후원을 중단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좌파든 우파든 제대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기부를 재개했다.

“이제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삶을 정리해 갈 때가 됐죠. 그러나 기부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므로 그 분이 축복하신다면 이 일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1년 5~6월)

- 강성찬 ● 강혜원 ● 고경규 ● 권성식 ● 권순정 ● 김강윤 ● 김광석 ● 김남중 ● 김대환 ● 김도은 ● 김명욱 ● 김문욱 ● 김미선 ● 김서현
- 김석천 ● 김세희 ● 김소영 ● 김수미 ● 김영미 ● 김외순 ● 김원근 ● 김장경 ● 김지수 ● 김진영 ● 김진호 ● 김태정 ● 김태현 ● 김현호
- 김혜순 ● 노 아 ● 민흥기 ● 박광근 ● 박민재신부 ● 박서진 ● 박성민 ● 박영선 ● 박은희 ● 박정진 ● 박종민 ● 박진수 ● 박진형
- 박태민신부 ● 방기훈 ● 방미연 ● 배군희 ● 백은영 ● 백정혜 ● 변지원 ● 소화데레사 ● 손세영 ● 손주영 ● 손철근 ● 송인철 ● 송채문
- 송호성 ● 신정원 ● 신현주 ● 신화자 ● 안성봉 ● 양길석 ● 엄강진 ● 염세실 ● 원미정 ● 유동준 ● 윤용희 ● 이경훈 ● 이계호 ● 이리라





●이문희 ●이상환 ●이유미 ●이은미 ●이정현 ●이중근 ●이지성 ●이지연
 ●이지훈 ●이진경 ●이진주 ●이형직 ●임동관 ●임수진 ●임철호 ●장성원
 ●장성진 ●장성호 ●장영 ●장정은 ●정민희 ●정상희 ●정슬아 ●정수민
 ●정수원 ●정영도 ●정요셉 ●정요한 ●정윤희 ●정진선 ●정채희 ●제갈은지
 ●조선희 ●조수빈 ●조은영 ●조재영 ●조혜성 ●조훈이 ●최은영 ●최정용
 ●최준명 ●최준열 ●함영섭 ●현우택 ●홍성준 ●홍세찬 ●홍정연 ●황인영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2021년 5~6월)

●(주)만성 ●(주)현대공인중개사사무소 ●반도의잡화상 ●신현상사 ●영국온라인
 기부재단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2021년 5~6월)

●김학배(고창) : 블루베리(1상자), 블루베리즙(1상자), 오디(1상자) ●김현숙 : 상추
 1상자, 감자 1상자 ●꿀벌유치원 : 쌀 110kg ●박현정 : 외플 1상자 ●익명 : 두유
 2상자 ●착한과일 : 수박 2통 ●청년식당 : 쌀 200kg ●최송원 요한 : 양파 2상자
 ●팜한농 : 수박 15통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1년 5~6월)

●김동현(목동의집) : 옷 1상자 ●김영희 : 옷 1상자 ●김홍희 : 옷 1상자 ●노동윤 :
 옷 1상자 ●돈암동성당 : 옷 2상자 ●부산 익명 : 옷 1상자 ●세기아트(이성욱) : 옷
 1상자 ●오덕주 : 신발 1상자, 옷 1상자 ●우면동성당 : 신발 4상자 ●유경동 : 옷
 1상자 ●이순희 : 신발 1상자 ●익명 : 여성의류 2상자, 옷 1상자 ●전경순 미카엘라 :
 옷 2상자 ●최봄 : 여성용신발 1상자 ●최서영 : 옷 1상자 ●최영자 율리안나 : 옷
 2상자 ●포비월드 : 옷 1상자 ●효성 TNS : 안전화 30켤레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1년 5월~6월)

●비타민엔젤스 : 나눔비타민, 온누리약국복지회 : 트리플비타민C, 제일한방 :
 한방파스, 하나제약 : 노마로크 외 18종, HK이노엔 : 카발린 캡슐 외 4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1년 5월~6월)

●명동신협 : 세제 4상자 ●박은경(부산) : 잡화 1상자 ●비타민엔젤스 : 마스크 3000장 ●세기아트(이성욱) : 마스크 146장
 ●이순애(문래동성당) : 마스크 501장 ●익명 : 마스크(13장), 파스(20매), 스킨로션(4개) ●지노C&T : 국산차 및 아이스차 4상자 ●카프 :
 세정제 2상자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봉사 나오신 분(무순)

- 의사 : 고명섭(정형외과)
임성미(응급의학과)
박상욱(한의원)
- 약사 : 박수경 · 최경아 · 최윤영
- 간호사 : 이민주 · 장현민 · 최민정
- 방사선사 : 김소영
- 일반봉사 : 김혜정 · 권세연 · 오경희 ·
이은림
- 신학생 현장체험
- 대전교구 정승현 방글라시요(6.01~)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

- 목동의 집
- 서울시립여성보호소
- 안산빈센트의원
- 쪽방나눔(626 가구)
- 청년식당
- 카자흐스탄 의료봉사팀
- 카프병원
- 토마스의 집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1년 5월	1,039명
2021년 6월	1,218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1년 6월 말 현재)

709,230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맞닿은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 집회 2장 5-6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서울 요셉의원과 필리핀 요셉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0여 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
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
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
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
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
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목욕서비스

시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알코올의존증 상담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법률상담

시간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1층 봉사자실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